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림교회 중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많은 양 · 새가족 위한 사랑 회복

다음 주일에 총동원 초청 전도

가출한 자녀나 형제를 방치한 채 마음 편히 지낼 부모와 가족은 없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고자 몸부림친다. 이와 같이 개척 당시의 교회는 한 영혼을 잃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금식을 하고 수많은 밤을 철야하며 기도하면서 수심반을 만나고 심방해서라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교회가 대화되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희미해져만 간다. 출석하는 성도도 비금감 만한 숫자의 열아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면 그 기쁨을 무엇에 비기랴. 모든 가족은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온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그러나 교회 안을 돌아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새가족들이 점점 늘어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명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는 말씀은 설교의 주제에 그칠 뿐 성도들의 심령에 마땅히 가득해야 할 구원의 열정은 사라져만 간다.

이러한 때에 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청년1부가 협력하여 '젊은이가 드리는 5부예배'를 통해 잃은 양을 찾고 새가족을 초청하면서 영혼 사랑 회복운동을 벌이는 것에는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새 부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며, 바로 다음 주일(24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드리는 5부예배에 이들을 초청하고자 한다. 성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에 있는 고·대·청에 해당하는 지체들을 적극 권면하고 인도하여 영혼 사랑 회복의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장로수련회 '충성'을 주제로 10월 18-19일

10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99 가을 장로수련회는 '충성'을 주제로 하여 기독교 성지인 제약리교회 및 여수 애양원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순교자들의 피로 거룩과 성결을 지게 왔는 바,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순교자들의 충성으로 시작되고 전개됐다. 3·1운동과 신사참배, 공산당, 그리고 6·25 등을 떠올리지만 해도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위한 순교자들의 희생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장로수련회는 이러한 순교자적 정신을 기리고 회복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성도들은 이 취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하겠다.

'99 작은 사랑 음악회 19일(화) 오후 7시 성도들의 많은 동참 기대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99 작은 사랑음악회가 19일(화) 오후 7시에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다. 임남우엘전양대와 3교구가 함께 주최하고 강남구청 신우회가 후원하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전하고, 새로 초청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의 마당에 독주(윤성원), 독창(최신자), 남성중창(충현남성중창단), 기악연주(강남구청합창), 여성중창(임남우엘전양대), 합창(임남우엘전양대), 그리고 성도 메시지의 선포 및 식사와 찬교로 진행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기대된다.

"부모님들 안심하세요" 어린이, 주일 오후 프로그램! 현재 지원자 접수중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의 교회교육은 1시간 30분 후인 12시 전 모든 순서가 끝난다. 차세대 일꾼을 키우는 이 중대한 신앙교육이 모이고 광고하고 흠이되는 시간을 빼면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급하게 드러지는 예배와 본당의 성경공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분 친밀한 형태로 진행되는 신앙교육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타부서 교사 및 찬양대, 교구와 위원회 등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봉사가 끝나는 오후 찬양대에 시간없이 하영없이 기다리면서 방치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오후에 흠여 있는 아이들을 한 데 모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소년부가 연합하여 진행되는 주일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매주 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며 장소는 교육관 208호(시청각실)이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은 자유놀이와, 협동학습(디모데전도훈련), 시청각교육 등이며, 책임을 맡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관에서 지원자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관(교육관 103호, 교환 471번)으로 하면 된다.

권사회 임원 수련회

권사회 임원 수련회가 10월 21일(목) 대실각에서 진행됐다. 출발 시간은 당일 아침 6시이며 강사는 이흥성 목사이다.

금주의 대신자 전도집회

10월 19일(화) — 3교구
10월 22일(금) — 16교구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10월 19일(화) — 9교구
10월 21일(목) — 10교구
10월 22일(금) — 16교구

단기선교참가자 수련회 10월 22일(금)

겨울 단기선교에 참가할 선교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회가 22일(금) 오후 10시부터 충현기도원에서 있게 된다. 겨울 단기선교에 참가할 단원들은 교회에서 금요집회를 드린 후 기도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지며, 친교를 다지게 된다.

교역자 소식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동서울노회 제56회 정기노회를 통해 우리 교회 박익기 강도사(에바다부 지도)와 연현일 강도사(중동1부 지도)가 각각 목사로 임직을 받았고, 한승일 전도사(소년부 지도)는 강도사 임명을 받았고, 성도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주고자 하였다. (6면 참조)

! 생각하기

예배 중 '빠리릭' 정말 곤란합니다!

어전히 계속되는 예배 소음이 있습니다. 지도자 각 기도하는 중, 설교가 조용히 시작되는 중 여기 저기서 핸드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핸드폰에서 연속적으로 벨소리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말예배도 그렇지만 특히 수요일, 2부예배와 금요일예배 조금 더 심합니다. 작당이나 가정에서 바쁘게 오느라고 깽보를 틀어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달리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벨 소리가 울리면 적지 않은 성도들의 시선은 소리나는 곳으로 쏠리고, 기도나 설교가 갑자기 성도들의 마음에서 분산되어 흠여져 버립니다. 왜 좀처럼 고치하지 않는 것일까요? 신령한 예배를 위해 좀더 신경을 쓰고 줄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2천년도에 귀 부서에서

함께 사역하실 동역자들을

이렇게 구하십시오

"귀한 당신을 찾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부서에서는 명년도에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고자 본주에 집니다. 이를 위해 주년총회에서 11월 7일까지 모든 부서에서 참여하는 2천년도 동역자 찾기 광고(일과시 작성방법)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10월 31일(주일)까지 내년도에 귀부서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교사나 일꾼 모집 광고를 주년총회 편집실로 보내주시되 필요요 교사의 자질과 인력, 귀 부서의 특성 등을 함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임 목사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32:5-13)

“...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니라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니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

1.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

땅 위의 나그네로 와서 머무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아니면 생명은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두통 실 때울라 빛을 비추어 주는 태양의 열과 빛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들에 있는 많은 곡식들이 여름과 가을의 추수 풍년의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님 선물이라는 말은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도 지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지혜가 없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서 먹고 삼키지만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 주신 지혜로 만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사람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할 죄가 갈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꿈에라도 생기지 않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2.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

(1)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물어 봅시다. 영광 돌린 일이 없다면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육 돌린 일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짐승들과 다른 인간들이 복 받은 것이 한없는 은혜인데 이것을 감사하고 조심하면서 불독도 쓰고 지혜롭게 이용했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여 무서운 영적 병이 들었습니다. 고만한 병이 들었습니다. 지식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남보다 예수 잘 믿는다고 교만하고, 돈 많고 있다고 교만하고, 고만한 자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병이 든 사람은 경쟁 의식, 시기심이 생깁니다. 나보다 나은 자는 따라가고 배우면 되는데 오히려 헐뜯습니다. 나보다 못한 자는 사랑

으로 위로해 주고 권면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오히려 발로 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원망만 남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식들, 교인들은 목사님들, 목사님은 교인들을, 백성들은 정치가들을,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이 꼭 찬 곳에는 분쟁이 생깁니다.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지혜를 바로 쓰지 않고 악용해서 만물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60억 인간의 가슴 속에 죄가 찢고 헤도 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죄의 병으로 인하여 마침내 인간들은 제 가문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만물을 주신 것도 사랑이지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인간이 형언할 줄 수 없는 거룩한 사랑, 큰 사랑, 영원한 사랑,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다. 딱 다섯으로 오면 명을 먹이심으로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둥이도 깨끗하게 해 주셨다. 욕심의 병도 낫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욕심의 질병만 아니라 사회의 은총을 배신하는 불의라는 것도 보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죄의 권세 아래서 좌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늘 가는 맑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선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무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성령부스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대 상용하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

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은 우리들이 행한 일을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바쳐도 그것은 구원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로 얻게 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인정하실 때 상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것과 구원받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계속해서 부으시는 은총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치에서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은총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1)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은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 양은 목자의 보호가 꼭 필요하고 목자의 인도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 같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로 구원함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목자가 되어 보호하십니다.

(2) 계속적으로 말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어찌 많이 마셨다고 해서 오늘날 안 마시도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보호를 받을 때에 악마가 손을 못 대지, 하나님의 손에서 풀어서 떠나면 악마가 손을 뻗는다. 곤일 납니다. 주님의 팔에 있는 동안만 편안합니다.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동안만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곤만한 마음 품고 땀과 겨 마시기를 배반합니다. 거짓 유다는 돈 따라 갔다가 불행해집니다. 친구 따라 돈 따라 갔다가 음란죄 범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 갑시다.

3. 사랑받은 자의 3박자 생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치에 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감옥에 갇혀 땀을 맞으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겠습니까? 그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그들보다 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에 살게 하신 것뿐입니다. 영육간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나서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하신 것입니까. 따라서 그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영생복락 누릴 생각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계속해서 합니. 심장이 쉬면 씩씩합니다. 기도하느라 쉬면 씩씩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하고, 회개하는 기도 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4. 결 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입으로 어찌 다 말할겠습니까.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재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생령으로서 오늘날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들이 다른 기쁨을 게으름으로 놓치지 말고 기쁨의 배를 타고가다 만났처럼 말고 구분 지켜서 은 함을 다해 일할 만한 때에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 하 하 하 하 하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고 잘한 것만 칭찬하거라. 목자의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내가 잘했으면 나는 은혜를 얻은 것뿐이고 내가 못했으면 내가 못나서 된다고 내가 잘못한 것뿐이니 회개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만 길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부지런 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요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희망 있는 개인이 되시고 가정도 우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록 목사

나답과 아버후의 죄

(레위기 10:1-7)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배울한 레위인들을 시내에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그 백성을 돌보는 자로, 그리고 성막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그의 네 아들 곧 나답과 아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민 3:2, 출 6:23)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정하셨습니다(출 28:1).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후에는 이스라엘이 지킬 제사의 도리와 믿음의 실행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지시 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이 마음에 새기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들을 말씀하심으로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필요한 규례들을 실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따라서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법규들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집으로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칠일이 끝난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칠일 동안 거룩을 위한 의식을 지냈습니다(레 8:9장).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대신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레 8:36)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사 직무의 시행은 여덟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레 9:1). 그들은 이제 막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러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칠일의 기간이 끝난 후, 팔일이 되는 바로 그날 나답과 아버후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버후

나답과 아버후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임하실 때마다 네 명의 제사장들과 칠십인의 정로들을 부르시어 예배를 하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버후는 바로 이 네 명의 제사장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출

24:1, 9).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름다우신 영광의 향연에도 동참할 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출 24:10-11). 다른 칠십인의 장로들과는 달리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행할한 불같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출 24:17). 그들은 여호와와 얼마나 경이로우시며 거룩하신 참 하나님인지를 보고 아는 위대한 특권을 경험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1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

이 명령이 나답과 아버후의 죽음 직후에 아론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나답과 아버후는 하나님의 이 명령도 어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서는 불순종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거룩은 더러운 것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을 뒤섞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버후는 자기들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었고 그 결과로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예배를 단지 습관적인 의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매력있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인 오락이나 방법들

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때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걷게하신 성령께서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을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승리의 축복과 심판의 저주는 너무나 가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우리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부정을 떼어내라

여호와께로 나온 그 불은 나답과 아버후를 태우므로 더러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시켜 나답과 아버후의 시신을 성막 밖으로 끌어내게 했을 때, 시신들은 제사장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였습니다(4:5절). 범죄하여 더럽혀진 시신과 상하지 않은 옷은 부정과 거룩의 분리를 보여 줍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상징하는 그들의 거룩한 의복은 그들의 부정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슬픔으로 울부짖으며 옷을 찢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전대로 행동했습니다. 지난 칠일 동안의 그 놀라운 경험과 순종이 팔일째 되는 날 여지없이 깨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섬겼어야 했던 그 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망각한 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말씀하실 때, 대개 모세를 통하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 혹은 모세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네 자식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람을 연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9절).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직무를 분별력있게 감당할 수 있고(10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11절).

로 뒤적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 역시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요 4:24). 칠일간의 정결케 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제사장 직무에 시작하는 첫날, 모든 것을 잃게 된 나답과 아버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에 섞은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축복과 저주

나답과 아버후는 사실 부룩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요 삼손은 과거에 예수의 왕자였다고 저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입니다. 그들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그 불은 두렵고도 거룩한 불입니다(레 9:24). 반예배를 태웠던 그 불이 나답과 아버후도 태운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거룩한 그 불이 불순종을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이입니다.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고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 아니니라”(히 12:28-29).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M

세계 선교

방글라데시를 생각하며
그제서야 비로소 ...

백 경희(대학부 3학년)

지난 7월 16일~28일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바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상향 가운데 간섭하시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도.

현지에 도착하면서부터 계획되었던 민박은 갑자기 모두 취소되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다른 가정을 연결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조별로 나눠졌던 우리 팀이 다시 만나기로 했던 날, 시간 약속이 어긋나 무렵까지 기다리다 떠나야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를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이 없던 한 중국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게 하셨다. 나는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끝내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아깝다는 생각으로 불평을 했지만, 그 중국 소년을 만난 후야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도 방글라데시에 도착하기도 전, 점 가방을 잃어버려서 무척이나 아까워하며 속상해 했던 나는 사역이 마무리되기 이틀 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못하면 팀원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참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지 않는, 나의 사람으로

수리남에서 온 편지
치료의 표징들을
보여 주신 하나님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말라리아 다음으로 무서운 열병인 행개에 처음 걸렸었습니다. 두통과 함께 눈에 통증이 심하고 온 몸에 열결이 피어, 의사는 홍역의 일종이 아니냐고 하면서 예방주사를 맞았었는데 문고 했습니다. 한 기는 조금 가셨지만 통증은 여전했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는 치료해 주시고 응답에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치료의 표징들을 보여 주시어 주일 아침, 예전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문답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비쁘게 주일을 지내고 보니 막 억는 것도 잊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리남에서 안석렬 선교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점가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현지 영혼들의 얼굴, 아직도 예수가 단순히 훌륭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뿐이었다.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국가처럼 예수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주가 아닌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시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기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뒤에 해야 할 기도의 사역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이 중요한 후속 사역에 현지에서의 사역때만큼 헌신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방글라데시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팀들도 자신이 갔던 나라에서 자신이 만났던 영혼들만이라도 책임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령한 예배

예배 바로 알기

예배와 집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부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부서는 "집회를 한다"고 말한다. 예배와 집회는 어떻게 다를까? 모든 성도가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을지라도 대략적인 이해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 이라 한다. 이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경배'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드리는(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맡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배에는 전체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일정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찬송과 고백, 기도와 성경봉독, 말씀의 선포와 헌금, 축도 등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그 순서와 내용이 긴밀하게 짜여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를 지향하게 된다. 찬송만 부르거나 처음 부르는 찬송과 중간에 부르는 찬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이 예배 전체의 흐름에 적절하게 어울리도록 배치된다.

한편, 집회는 어떤가? 집회는 회람이 '쉬는시간'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찬송과 성경봉독, 그리고 기도를 이루어져 있는 기도회 형식의 모임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집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경배미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성도간에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대예배, 소예배?

우리는 흔히 주일 낮에 성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른다.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교회학교 예배가 무언가 좀 모자란 예배(소예배)라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회의 예배를 대표하는 중성예배를 꼽으려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학교 예배가 아니라 주일 낮 성인예배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기 보다는 '본예배' (Main Service)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편진실)

찬양예배에 대하여
아름다운 화음 이루는 "찬양예배"

노영한(집사, 대학부 교사)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던 한 세기 전 초대 교회들은 찬송가를 악보대로 부를 수가 없었다. 구한말 서구식 음악교육도 없었고 전통 민요와 농악에 익숙해진 우리의 선배들은 자연히 기분에 맞게 찬송을 불렀고 그러다 보니 찬송가 곡 하나에 가사만 바꾸어 부르게 마련이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찬송의 중요성을 알아 찬송 공부를 시켜야 되었는데 외국에는 없는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서구화된 학교교육 때문에 찬양이 찬송 공부를 안해드리는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인지 찬양 예배와 주일 낮 예배와의 특징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찬송이냐 경성적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여 노래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냐 음정 박자 좀 틀려도 어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교회, 특히 대형 교회는 자라는 환경, 직업, 학력, 나이, 경제 수준, 생활방식 등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신앙공동체가 갖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모임이다. 따라서 인종에는 형제, 자제 사랑을 말하지 않는 집음과 불협화음이 있게 마련이다. 오케스트라가 각기 특성이 다른 많은 악기들이 모여 작곡자의 곡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지휘자가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건설적이고 사랑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되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화음을 이루는 것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훈련과 교육이 찬양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우리는 이미 위임목사님이 오신 이후 찬송을 배우며 같은 찬송인데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를 수 있구나 하는 체험을 한 바 있다. 우리가 잘 부르지 못한 찬송이 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도 틀리곤 바 있다.

이제 저녁 찬양예배가 주일 6부예배와 화 되는 것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 이름 그대로 찬양을 배우며 찬양을 드리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는 예배로 발전하는 것도 연구해볼 때가 되었다. 100년 전 우리의 초대 교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복음성만 부르고 찬송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찬송가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나 홀로 내 스스로는 찬송보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기를 화음을 이루는 훈련 과정과 잘지니 않기 때문이다.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은 충현교회 교회를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00년 초기의 충현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 배우기는 물론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기를 힘써 배우나 사랑이 넘치고 그들의 삶이 찬양이 되고 그들의 찬양은 천사들의 합창과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했다."

하나님의 열심

이길 권(청년부, 71동기)

제 인생에는

이 하나님과 같이
나를 위하여
부르심에 불순종
하여 나쁘게
살아오니
다시 새로
나를
만들어 주시
옵소서.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후 줄곧 하나님의 영광을 살피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재수시절과 대학입학 후에 접했던 네비게이션교단 활동과 기독교세계관이라는 학문은 저의 인생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가 아니라

간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꿈은 접어둔 채 평신도 전도사역자를 꿈꾸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역 영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은 각자가 구체적인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저는 아무런 발뚧이도 없고 싶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라 하고 이제는 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

더라도 소명에 대한 재확인만을 위한 기도에는 집중하지 못하였고 다른 길을 보여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은 올해 겨울 수련회 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으며 순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중에요 한복을 21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길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양을 먹이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새롭게 개신 소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열심과 눈물과 사랑으로 조원들의 영적 성장과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하기에 벅할 정도로 많은 조언들이 저에게 말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과된 것들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의 모습을 놀라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만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열심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의 열심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메르세데스 등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반드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으며 당신의 사랑과 열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양 성 연(청년부, 72동기)

직장이 없었던 지난 2년동안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하심으로 내 안에 억압되고 눌렸던 영이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는 둘째딸입니다. 어머니는 셋째 딸을 낳으시고 더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이나 바라셨지요. 결국 아버지의 외도로 생동학교 2학년 때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나에게 아버지과 누나들이 대안한 적대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능력'과 '부'로 보상 받으려는 욕구로 나라났고, 나의 영혼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눌려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감동적인 주 권하에 나는 내게 주고 있던 모든 것을 놓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자양육과 그리스도 성경공부를 시작 하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에 너무나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자리잡고 있는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있고 싶었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과거의 기억들, 아버지를 해치고 싶을 만큼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 ...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 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기억치 못한 과거까지 보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 아픔과 용서 못하는 마음을 못박기 원 하셨습니다.

더이상 피하고 도망가기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을 십자가 밑에 못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내 기도는 늘 메아리처럼 나에게 다시 울려났는지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늘 침묵만 하였던 하나님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지쳐서 울부짖던 어느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들이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너의 가정이 이 일을 통해 복음화 되었다."

나는 그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일 교회에서 울부짖었는지 ...

나의 가장경이 이제 더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상처를 통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쓰시고 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 실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Helper언니를 통해 아픔을 내려놓도록 도우셨듯이 청년부 안에서 나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날 청년부 '치유와 용서'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짧은 간증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금 봉(청년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내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기회를 살길 주시길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나이다.

위로의 성령님 보내 주시고 성령님을 마음 속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땅국하옵신 사랑하심에 깊은 감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경의 인도하심대로 성경 안에서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한 삶 속에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길 믿사옵나이다.

구제하며 신교, 진도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흠족하게 하여 드리고 싶나이다. 늘 성령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 수 있길 소망하오며 가난한 자의 의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상절과 온 유대사 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을 전하는 열매는 생애를 헌신하고픈 작은 소망 변치 않게 하여 주소서.

저를 원하시는 주의의 주관과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나이다.

평강과 평화의 성령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 하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간증처럼 성령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늘 한결같은 지 분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화와 거룩과 영화를 이루어 나가기 해주소서.

위로의 성령님, 관능의 성령님! 언제나 저와 같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유의 성령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유재 성(청년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과 더불어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항상 주어진 살지 못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받으며 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서로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내에게는 끝없이 주시지만 하는 분이 계심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달라고 부를 때 주지 않았는데 그 분이 그분은 묵묵히 주시지만 하고 있다. 내게 되롭고 지치고 또한 어려움 때 그분은 나보다 먼저같이 바라보고 끝없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올리워 가지며 천히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처음에는 잘 몰랐다. 성령이 무엇이며 무슨 선물을 주신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만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후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안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연약한 내 믿음으로 인해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지며 개인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신실하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나를 불쌍히 보셨다. 그런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몸소 느끼는 나 자신이 그런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는 지만 배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이런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입술의 찬송
마음에 가득찬 소망 안고 영원히 울릴 찬송

비록 육신은 꺼져가는 불꽃 같으나 구원 약속하신
주님 의지하여 살아온 인생 여정에 새겨진 귀한 교훈

이준 석(집사, 중동3부 교사)

어려해 전 병원전도를 할 때 일이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매는 환자분의 보호자가 복도에서 울리는 찬양소리를 듣고 우리 전도팀을 불렀다. 곧 숨이 넘어갈 듯한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켜는 채 침상에 계셨다. 아프시기 전까지 열심히 복사를 하셨다는 할머니는 항상 찬송 부르기를 즐겨하셨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곡을 부르시며 주의 일을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보호자는 찬송가 한 곡(502장)을 청하했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 빛 가운데로 걸어 가면 /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숙연한 가운데 병실에 울려 퍼지던 그 찬양. 비록 육신은 병되고 꺼져가는 불꽃과 같으나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로 걸어오신 할머니의 인생 여정은 그곳에 있던 모든 대원들의 삶에 길이 새겨진 인생의 귀한 교훈으로 자리잡았다.

"갑작한 밤에 다닐지라도 /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한 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어두움이 닥쳐오더라도 나의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주를 느끼며 나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앞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었다.

"광명란 그 빛 마음에 받아 /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 날마다 빛에 들어라"
세상의 욕심과 권세를 좇아가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마음 속에 가득한 소망을 안고 영원히 힘차게 울릴 찬송소리가 아직까지 컷전에 맴돌고 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천국일꾼을 키우는 힘
한 톨 두 톨 모은
사랑의 헌금



이희수 원로권사(72세)는 지난 14일 교회 사무국 문을 슬며시 열었다.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들려져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그 힘겨운 손길로 한 장 한 장 알뜰하게 모아온 거금 2천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권사의 전 재산이었다. 주름이 깊이 패인 손으로 한 톨 한 톨 모은 돈은 은행에도 넣지 않고 집안에 차곡차곡 모아 왔다.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 영혼들을 '천국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써달라며 보따리에 싸 가지고 방문한 것이었다.

이 권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남은 전 재산을 이렇게 드림으로 자신의 육신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아름답게 고백한 것이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보니, 힘겹게 모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요. 주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 돈이 젊은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권사의 고귀한 신앙고백이다.



십자가로 대답하신 주님 따르리

박인기(목사, 예배대부 지도)



대학 졸업업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후, 충격이 참 컸고 죽음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좌악 속에 몸을 내던지고 타락하기도 했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 보겠다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 많은 인간을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불혹을 지난 나이에 복을 전파의 일꾼으로 키워 주셨으니 저는 감사와 찬송 외에 더 무엇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총현교회에서 소명을 받아 놓아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터덜이 감사하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키워 주신 총현교회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예배대부 교사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뜨겁게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 양귀리를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받고, 앞으로의 길 갈을 바라보니 마음은 기쁘고 어깨는 무겁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니?"(요 18:38) 바라도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로 대답하지 않고 십자가로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로 인해 죽었지만 진리를 인하여 다시 산다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듯이 목회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처럼 진리를 몸으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목회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가진 값비싼 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는 마음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내 길 멀고 밤은 길은 지장도 지 본 항해를 향해 가는 길'을 밟히 비추시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지고자 합니다.

총현교회는 장제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대부를 통해 놓아인 전교와 신앙 교육에 힘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 예배대부가 한국의 30대 중반과 나아가 온 세대의 놓아

주님의 은혜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염현일(목사, 중동1부 지도)



이 무리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목사'의 직함이 어울리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지내온 시간이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 준비된 것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직함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의 마음 속에 어떤 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결에서 갑작스런 구원을 받아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한 강도처럼,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소명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하기까지 교회 앞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저에게 일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생하게 전할 것을...

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상한 심령을 안고 올지라도, 나날 때는 천국의 소망과 복을 전파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목회자를 하고자 합니다.

"밤 지나고 저 밤은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바른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라"시는 약속에 큰 용기 얻어

한승일(강도사, 소년부 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 은혜가 이적처럼 놀라진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세처럼 또 주지하게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모세가 한 이 고백의 말이 저금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 같은 고백을 하였는데 하물며 나 같은 못난 자야 오죽하겠는 것은 생각에서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렵고 망설여지는 일 앞에서는 좀더 담대해지고 의연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도무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의 믿음을 보여 드릴 수가 있을지 정말 앞마당 한 칸입니다.

주간총회에서부터 '강도사 인하여' 받은 소망, 각오, 앞으로의 계획 등'을 쓰고 원고청탁을 받았으나 이 처지에서 저의 각오와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저에게는 참 무리한 일입니다. 참 무리한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배우며 전하고 싶은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작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 세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일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출 4:1).



지체들 소식

영아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지난 주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만에 살아나신 주일(안식 후 첫날), 주 안에서 6일 동안 쉼을 하고 7일째 되는 주일에는 성수해야 하며, 오복을 구하는 일, 아기의 손을 잡고 산과 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주일은 평안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전인지를 잘 가르쳐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일 교회를 올 때 지각하지 않고 예배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한 가지 분명한 원칙

지난 주일 1부예배 후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도사님과 장로님, 여러 선생님들과 영아, 아바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화기에애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우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멋지게 키워보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한 가지 분명한 원칙-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를 가지고 교육하려 애쓰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4, 5세 어린이를 데리고 대에배만 드리는 부모님들은 유아부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미순 통신원)

초등부
처음으로 가진 토요 행사



지난 9일 토요일에 찬송가부르기대회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토요일에 모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많은 학생들이 찬송가부르기 대회에 참가하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미숙 통신원)

소년부
충동원주일

2차 세 친구 초청 행사의 일환으로 31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407호에서 출석 인원 400명을 목표로 많은 양을 찾는 충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각 반별로 1명 이상 세 친구를 전도하여 초청하는 한편 장기 결석자에 대한 특별 심방과 금년도 신일예배로 등록한 학생 중 출석하지 않은 친구들을 다시 초청토록 하며 1차 세 친구 초청찬치식 작성하였던 태신자 중 미출석자들을 중점적으로 초청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자녀로 둔 성도님들께서 예배시간이 많지 않아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있거나 거리가 멀어 타교회에 나가고 있는 학생들을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종기 통신원)

중등1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지난 주일 열린 목사님께서는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에 이 헌하는 대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부름을 받은 것은 존재가 없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개념없이 우리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왕따', '왕자', '공주' 등 특정 친구들을 의미하고 스스로 교만한행위를 조장하는 단어들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중등1부 안에서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사라지기를 바라며 우리

친구들이 더욱 연합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범진 통신원)

청년2부
돌이켜 귀한 영혼들을 위한 잔치 마련

한해를 마무리하는 문턱에서 그 동안 뿌린 씨앗들을 거두기 위해 이번 주일은 '충동원 전도의 날'로 정하고 '11월 전도'를 실천하기로 했다. 전도전화를 위해 교사들과 면회직원들은 태신자 카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해왔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는 애잔식을 통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만 30-39세까지의 청년2부에 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주님 안에서 떡을 떼며 사랑과 기쁨을 나눴으면 한다. (백영자 통신원)

사랑부
예배다부 친구들의 생일, 함께 축하했어요

지난 주일 예배다부 창립 11주년 기념 잔치예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한 학생이 먼저 '내 영혼이 온통 일어'를 독창한 후 이어서 '예수 사랑함'을 합창하였다. 하나님의 온통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민혜정 통신원)

예배다부
11주년 기념예배

11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주일 잔치예배에서 드렸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하고 기쁨 주네 그 큰 사랑"(찬송가 414장) 손조기로 드린 찬양을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 하고, 낙원함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20주년,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교백들이 넘치길 소망한다. (이미미 통신원)

신혼가정부
아름다운 신랑, 신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 두 분의 결혼이 주님의 온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결혼 준비반이 충현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 준비반이 약 8주 과정의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새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꼭 참석하시어 축복받은 결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교육 일시 및 장소: 매주일 오전 10:40-12:30
교육관 202호

교육내용: 성경적 결혼관, 배우자 가족과의 바른 관계 맺기, 가정경제, 결혼한 결혼 준비, 부부의 심리 이해, 건강한 가정과 부부생활, 가정법률상식
(신경자 통신원)

1교구
교정전도회와 함께한 교도소 특별 집회

10월 11일 영동교도소에서 교정전도회와 특별연

나는 왕따가 되고 싶다

박 우 정
(집사, 충동3부 교사)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 버렸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히 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주일 삶을 살면서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 속에서 옛세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적은 듯하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밥도 먹어야 나쁜 밤에도 읽고 자기 전에 회개 시간도 갖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일 뿐 내 삶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다. 하나님께선 항상 내 옆에 계시는 태도 말이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괜히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불안감, 내가 가진 것, 아무도 없는 것을 모두 놓쳐버릴 것 같은 초조감. 이런 것들이 나를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나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세상 것들에 더 연연해 하고 있으니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세상 것들에서 왕따 당하고 싶다. 두 손에 꼭 잡고 있던 것들을 파묻히 내려 놓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싶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기 힘든 일이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러 한다. '내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함 집회를 가졌다. 요배충동단과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응답하는 그들의 박수는 그들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이혼생각이던 이들에게는 전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범죄자이며, 각자의 삶에 책임지는 전신으로 성실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지기 이 순종함으로 전경 예수는 형이요 소망이며 생명이 되심을 체험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이날 함께 동행했던 교구식구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기회를 갖게 되고 어떤 행사보다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임희경 통신원)

오늘!!
중등1부 학부모님을 예배에 초청합니다

부모님들이 청소년기의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을 먼저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등1부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과도 만나 범교적적 차원의 '청소년 기독교 동계' 형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의 계적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17일(오늘)
장소: 중등1부 예배(교육관 414호)
일정: 예배, 부장 장로의 인사와 격려
지도 교역자의 기도회 인도, 담임교사와의 대화

구분	시 간	창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성화, 화이여 동행성가회)	본당
	IV 오후 1:00(타미동우회성가회)	본당
	V 오후 3:00 (울산시가노인회성가회)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북미촌 가나미(Cana Hill)
천 양 예 배	오후 5:00	본당
수 요 예 배	12:15 ~ 12:30 오후 7:00	본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당
주일기도회	9:45	본당

⑦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서는 날을 속히 허락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정치를 해나가게 하소서.

⑧ 60만 국군장병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복으로서 거듭나는 온총을 허락하소서.